

오제에 대하여

‘오제’는 오제 국립공원을 구성하는 넓은 범위의 산들과 습지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오제는 일본에서 가장 큰 섬인 혼슈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군마·후쿠시마·니가타·도치기 네 현에 걸쳐져 있습니다.

오제의 자연환경에는 인간이 간접한 흔적이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오늘날에도 귀중한 자연이 유지되고 있으며, 일본 ‘자연보호운동의 원점’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오제는 일본에서도 가장 넓은 편에 속하는 고원 습지로서 서쪽에 ‘오제가하라’, 동쪽에 ‘오제누마 호수’라는 분지 형상의 두 습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오제가하라의 넓이는 길이 약 6km, 폭이 약 2km에 미치며, 평균 해발은 1,400m입니다. 한편 오제누마 호수는 해발 1,660m에 위치하며 둘레가 9km입니다. 오제의 대지(臺地, 주위보다 고도가 높고 넓은 면적의 평탄한 지형)는 약 200만 년 전의 화산 분화로 흘러나온 용암이 독립적인 와지(窪地, 움푹 파여 웅덩이가 된 땅)를 만들어낸 뒤에 형성되었습니다. 이 와지에 조금씩 이탄(泥炭, 생성된 지 오래되지 않아 완전히 탄화하지 않은 석탄)이 겹쳐 쌓이면서 이탄습지로 발달해왔습니다. 오늘날에는 광대한 습지 식물 생육지로서形形色색의 꽃들이 아름답게 만발하고 있습니다.

오제가하라는 2,000m 정도 높이의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산이 2,356m의 히우치가타케 산입니다. 서쪽의 시부쓰산을 제외한 모든 산이 화산 활동에 의해 탄생했으며 깊은 숲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시부쓰산의 광물 성분은 식물이 자라기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아서 이 산의 산림한계는 다른 산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부쓰산 위쪽은 매우 전망이 좋아서 동쪽으로 펼쳐져 있는 습지의 파노라마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제 국립공원 내 입구부터는 걸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원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산길뿐입니다. 오르는 길은 주변 산들로, 내려오는 길은 습지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특히 군마현 쪽에 있는 하토마치토게 고개 입구는 도쿄 방면에서

접근하기 쉬워서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산중의 등산로는 잘 정비되어 알기 쉬운 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습지대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나무 길이 사방으로 놓여 있습니다. 하이킹 코스로는 당일치기로 즐길 수 있는 코스부터 공원 내에서 숙박을 해야 하는 더 긴 코스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제 국립공원은 일반적으로 5 월 상순부터 10 월 하순까지 개방합니다 (적설량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 해발과 날씨에 따라 늘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에조차 오제는 수많은 다른 표정을 보여줍니다. 습지를 뒤덮은 이른 아침의 안개가 천천히 걷히며 주위 산들이 그 실루엣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는 것은 잊을 수 없는 체험입니다. 무지개도 종종 뜹니다. 맑은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거나 반대로 흐렸다가 갑자기 맑아지기도 합니다. 오제의 다양한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방문하는 열정적인 사진 애호가들도 많습니다.

겨울이 되면 두터운 눈으로 뒤덮이고 기온이 영하 10℃까지 내려가 혹독한 추위가 오기 때문에 공원이 폐쇄됩니다. 해발이 높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기온이 30℃에 도달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밤에는 꽤 추워지기도 합니다.

관광 안내소가 두 군데 있으며, 이곳에서 국립공원과 공원의 자연 환경, 생물의 생태 등에 숙련된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산로와 나무 길의 경로, 추천하는 복장과 장비 등 등산 준비에 도움이 되는 조언도 얻을 수 있습니다. 공원 내에는 세 곳의 캠핑장과 스무 채 이상의 산장이 있어서 숙박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장에서는 식사, 욕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장은 예약제이며, 캠핑장은 일부 예약이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자연보호 활동가, 산장 직원, 공원 관리자,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 오제는 일본 자연보호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오제 국립공원은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모든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환경을 지켜나가겠습니다.